

이슬람 문고 시리즈 ⑥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God in Christianity
What is His Nature?

지은이 Dr. Naji Ibrahim Al-Arfaj



이슬람은 예언자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고 무함마드(그분들에게 평화가 깃들기를)의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God in Christianity

What is His Nature?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차례

미리 던지는 질문들	6
서론	7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요 아니면 세 분이신가요? 예수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부인가요?	9
셋은 동등한 것인가요?	24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27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였나요?	29
결론	33
부록	35
마지막 의견	36
참고문헌	39

미리 던지는 질문들

1. 기독교에서의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요?
2.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 아니면 세 분[삼위일체]이신가요?
3.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가요?
4. 예수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부인가요?
5. 예수는 인간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6. 그렇다면 예수는 진정 누구인가요?
7. 당신의 의견은?

다음의 글을 신중히 비판적으로,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론

예수가 말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추구하며 삶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또 수년간에 걸친 관찰과 연구 그리고 비교연구를 해온 저에게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흔히 사람들의 믿음과 판단은 바위처럼 단단하기보다는 연약하고 모래처럼 변하기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당면한 주제와 관련해서, 저는 기독교의 하나님에 관해 일반적이며 공식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과 성경에서 언명하고 있는 것 사이에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사랑과 관심으로 제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학습한 여정을 통해서 깨닫고 배운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책의 의도는 제가 발견한 진리를 정직하고 진지하게 제시하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본성 즉 삼위일체와 예수의 신격(神格)에 관한 쟁점과 질문들에 관하여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요
아니면 세 분이신가요?
예수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부인가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그 해답을 구해 보기로 하겠습니까.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예수)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하매 그분(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네가 생명에 들어가거든 명령을 지키라, 하시니.”

(마태복음 19장 16, 17절, 킹 제임스 번역판)

위 출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왜 예수는 자신의 선함에 대해 의심했을까요?
- ◎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예수는 강조했습니다.
—왜 예수는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오직 선한 분이라고 말했을까요?
- ◎ 만일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왜 그 자신을 선한 분으로부터 제외했을까요?

- ◎ “네가 생명에 들어가거든 명령을 지키라.”하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왜 예수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도록 질문자에게 명령하지 않았을까요?
- ◎ 예수의 증언에 입각하여 본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자, 이제 위의 마태복음 19장 16절과 17절의 똑같은 절을 킹 제임스 번역판(The Holy Bible, King James Version)과 새 국제 성경 번역판(The New International Version of the Holy Bible)을 비교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어떤 사람이 나아와 그분(예수)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Good Master)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하매 그분(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Why do you call me good?)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네가 생명에 들어가거든 명령을 지키라, 하시니라.”

(킹 제임스 번역판)

“어떤 사람이 주(예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Teacher)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Why do you ask me about what is good?)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새 국제 성경 번역판)

쉽게 비교해 보기 위해서 예수의 두 가지 다른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판에서는 예수께서는 평범하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고

그러나 새 국제 성경 번역판에서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질문에 대해 킹 제임스 번역판과 새 국제 성경 번역판을 비교해보십시오. 그것은 같은 의미인가요? 두 가지 다 정확한가요?

예수는 하나님인가? 라는 비판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만일 예수가 하나님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속성(삼위일체의 한 부분)을 지니고 있다면, 저는 예수의 논리적 응답은 질문자가 그를 예를 들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을 시인하는 것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추리와 분명한 논리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가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면 예수는 선하신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으

십니까?

추정해 보면 어떤 젊은이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데에 대한 예상되는 몇 가지 응답으로 예수께서 다음과 말할 수 있습니다.

- ⊙ “물론 나는 선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 ⊙ “그대가 옳다. 나는 선이다.”
- ⊙ 또는 적어도 예수가 선이거나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현신이기에 자신이 분명 선임을 알고 있었다면 “**네가 생명을 돌아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라는 토를 달지 않고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젊은이의 “**선한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예수는 의외의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고 물으면서 자신이 선임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또 자신의 선을 부인하는 대신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이 선임을 시인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요? 예수가 진정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현신이라면 말입니다. 왜 예수는 자신의 ‘선한’ 신성을 드러내지 않고 참으로 선하신 분이 오직 한 분뿐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예수가 질문자에게 자신에 관한 진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인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 절에서도 예수는 또 다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과 구별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창조하고 보내신 분은 바로 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명령하고 보내는 완전한 권위를 갖는 것인가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인가요, 예수인가요? 명령을 내리고 보내시는 분과 명령을 받으며 보내어지는 분 중 누가 더 위대하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 전서 2장 5절)

이 절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며 또 하나는 **한 분이신 중보자(예수)**입니다. 즉, 예수를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절은 예수를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성경은 **그 어디에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인가요 또는 하나님의 일부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답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논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 전하고 있는 성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신중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태복음 4장 1절)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마태복음 4장 2절)

“마귀가 또 그(예수)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마태복음 4장 8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4장 9절)

이 구절들을 읽고 연상되는 질문이나
의견이 있습니까?

위에서 언급된 구절을 읽고 나의 마음을 흔든 몇 가지 질문과 의견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경은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 광야로 가사.”(예수께서는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인도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와 성령 중 누가 더 많은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수인가요? 아니면 성령인가요? 만일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왜 스스로 자신을 광야로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자신을 인도해줄 누군가의 힘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신가요?

2) 위에서 언급된 구절들을 살펴볼 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라고 간주하는 예수를 악마가 유혹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간단하면서도 논리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유혹될 수 있는 분이신가요?

같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유혹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 사실을 유혹에 관한 똑같은 이야기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12제자 중의 한 사람인 야고보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

3) 성경은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마태복음 4장 2절)고 말하는 바, 다음의 추론을 함께 해 봅시다.

- ⊙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시는가요?
- ⊙ 예수가 누구에게 금식을 해 보이셨다는 말인가요?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에게인가요 아니면 자신보다 더 위대한 누구에게인가요?
- ⊙ 하나님께서 배고픔이나 갈증을 느끼시는 분이신가요?

4) ‘예수의 유혹’ (이 제목은 여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이라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악마가 예수를 움직이고 통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마가 그렇게 한 것은 사람인 예수에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 예수에게인가요? 만일 사람인 예수에게라면 유혹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만일 하나님인 예수에게라면 도대체 하나님이 시험에 들고 움직여지고 통제될 수 있단 말인가요? “하나님은 악마에게 유혹되지 않으시며[하나님은 악마에게 유혹될 수 없다]…”는 야고보의 말을 기억해 봅시다.

예수와 악마의 대화가 끝났을 때에 그리고 “**내게 앞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마태복음 4장 9절)”고 악마가 예수에게 요구한 후, 예수는 악마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노라.”

(마태복음 4장 10절)

만일 예수가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라면 “아니다, 악마야. **너야말로** 너의 하나님인 **나에게** 엎드려 경배해야만 한다”라고 아마도 쉽게 대답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해 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악마에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위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 악마가 예수를 보았다.
- ⊙ 악마가 예수에게 말했다.
- ⊙ 악마가 예수의 목소리를 들었다.
- ⊙ 악마가 예수를 잡았다.
- ⊙ 악마가 예수를 안내했다.
- ⊙ 악마와 예수가 말을 했다.

(예수의 유혹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 보십시오, 마태 복음 4장 1절-10절).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라고 강조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디모데전서 6장 16절)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요한복음 5장 3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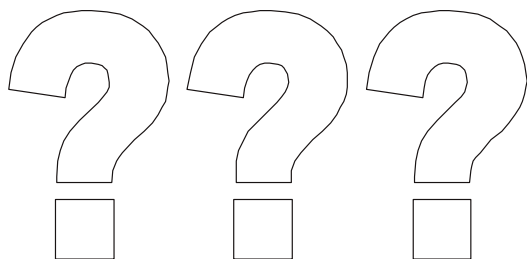
(디모데전서 1장 17절)

덧붙여, 이 부분을 종결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질문해봅니다. 예수가 지상에서 사는 동안 그의 가족과 사람들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은 그를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가요?

그러므로 위 구절에 나타난 예수의 묘사에 의하면 예수는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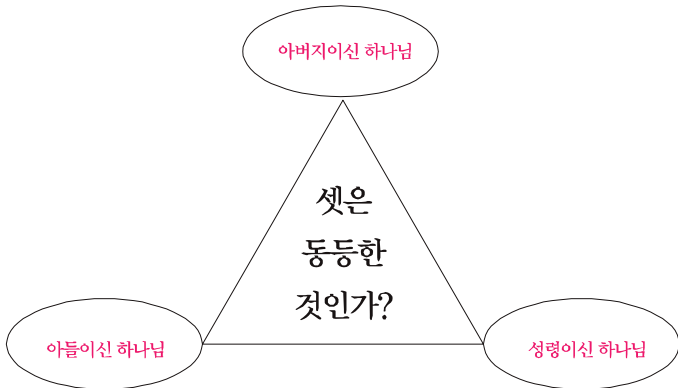
으로 합리적이며 논리적이지 아니한가요?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인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다른 비판적인 질문들에
대해 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셋은 동등한 것인가요?

- ⊙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신 하나님은 동등한 것인가요?
- ⊙ 아들이신 하나님(예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동등한가요?
- ⊙ 아들이신 하나님(예수)은 성령이신 하나님과 동등한가요?



예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을 다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요한복음 14장 28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하나님)의 것이니라.”

(요한복음 7장 16절)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가복음 13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2절)

예수 자신이 말한 진술들뿐만 아니라 위에 분명히 나타난 진술들을 읽어본 후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성령보다 더 위대하고, 또 자신이 가르치는 것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며, 또 자기와 성령은 최후의 심판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라는 예수의 정직하고 솔직한 증언에 입각하여 볼 때에 진정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바를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며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들거나 하나님과 동격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질문에 대해
논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인가?

성경에서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누가복음 3장 38절, 킹 제임스 번역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출애굽기 4장 22절, 새 국제 성경 번역판)

“주께서 나(다윗)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장 7절, 킹 제임스 번역판)

그러므로 성경과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다윗 또한 하나님이 낳으신 또 다른 아들인 것입니다. {정말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
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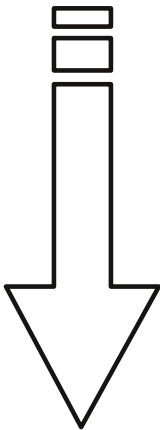
(마태복음 5장 9절, 새 국제 성경 번역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호칭을 많이 받

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만이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정의롭고 경건하며 선택받은 자 즉 하나님을 향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를 **비유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반드시
알아야 할 절대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였나요?

하나님은 셋이 아니라 하나이며, 예수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일부가 아니며,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으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는 성경에서의 증거에 대해 논해본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 예수

성경 속에서 예수는 사람 또는 사람의 아들로 언급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아래에 몇 구절을 소개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22절, 킹 제임스 번역판)

이 말은 예수의 아주 가까운 친구이자 추종자였던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매”

(마태복음 11장 19절, 킹 제임스 번역판)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요한복음 7장 40절, 새 국제 성경 번역판)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요한복음 8장 40절, 킹 제임스 번역판, 일부 성경책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성경을 검토해 보십시오!)

자신의 생애 중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예수는 자신이 ‘하나의 인간’임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에게 진리를 말해준 하나님의 화신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왜 예수는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가 진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선지자로서의 예수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21장 11절, 새 국제 성경 번역판)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4장 24절, 새 국제 성경 번역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
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요한복음 13장 16절, 새 국제 성경 번역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요한복음 6장 14절, 새 국제 성경 번역판)

“...그(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누가복음 24장 19절, 새 국제 성경 번역판)

위 구절들은 **예수가 전지전능하시며 오직 한 분
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었음을 보여주는**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절들 중의 일부입니다. 성경의 어디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해 둡니다.

예수에 관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마지막 지식!

“그(예수)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새 국제 성경 번역판)

위에 인용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결론과 그것이 함축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론

위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는 불변의 계시인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며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10-11절, 킹 제임스 번역판)

“...주 네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2-3절, 킹 제임스 번역판)

이와 유사한 성경의 구절은 그것들과 반대되는 소수의 절들과 비교해 볼 때에 성경 속에 수백 번씩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주제는 예수는 예수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탐구하는 여정의 끝에 나는 여러분이 숙고해야 할 몇 가지 질문을 다음과 같이 던지고 싶습니다.

- ◎ 이제 모든 것을 제 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때가 아닌가요?
- ◎ 이제 예수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예언자이며 한 명의 사람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올바른 위치로 돌려놓아야 할 때가 아닌가요?
- ◎ 너무 늦기 전에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오직 한 분이신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분께만 경배해야 할 때가 아닌가요?

부록

삼위일체, 예수의 신성, 원죄,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 예수의 피를 통한 구원 등, 기독교 신앙을 만든 사람은 바울(기원 후 5년 출생)였다고 성경학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훗날 바오로의 믿음과 가르침에 의해 채색되고 영향을 받게 된 4대 복음서 이전에 바오로가 그의 편지들을 썼다는 것이 학자들 사이에 널리 인정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즉, 바오로의 가르침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예수의 본래의 계시 사이에 차이로 인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의견

꾸란은 예수가 누구였는지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이해를 통하여 그분을 더 존경하고 사랑하게 합니다. 예수 탄생 이후 약 600년 지난 뒤에 보내진 최후의 계시서에서 그분의 생애와 가르침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또한 예언자로서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전합니다. 이 사명은 유니테리언에서 실제로 깨달은 방대한 시각에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출처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 시각을 꾸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꾸란은 그분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분의 신분이 무엇이었으며, 사명을 어떻게 완수했는지 등을 밝혀주는 매우 특별한 책입니다.

진지하고 정직하며 또한 성실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객관적 입장에서 연린 마음으로 신중하게 읽은 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인가요?
- ◎ 진정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 ◎ 하나님의 참된 계시는 무엇인가요?
- ◎ 무엇이 잘못 되었나요?

이 답을 다음과 같은 성꾸란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계시된 것 (꾸란)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계시된 것과 모세와 예수가 계시받은 것(구약과 신약)과 예언자들이 그들의 주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것을 믿나이다. 우리는 그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며 오직 그분(하나님)에게만 순종할 따름이니라.”

(바카라 (2)장 136절)

가장 아름다운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고문헌

1. NIV 한영해설성경 개역개정 4판, (2007) 아가페출판사.
2. 킹 제임스 성경전서 3판, (2006) 그리스도 예수안에.

이슬람 문고 시리즈 ⑥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God in Christianity
What is His Nature?

초판 발행일 2009년 2월
발행처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32-21
Tel : 793-6908, 794-7307
Fax : 798-9782

Homepage : <http://www.koreaislam.org>